경찰이 압수한 귀금속·고급 양주 등 각종 물품.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화번호부 이용 빈집 털이 186차례 금품 3억여원 훔쳐

광주 서부경찰 30대 구속

전화번호부의 주소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빈집털이를 해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3일 대낮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3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광주시내를 돌며 186차례에 걸쳐 3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3월 KT에서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범행에 필요한 3만여 가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리한 뒤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선택해 왔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번지별, 구역별로 주소를 분류하고, 보완이 잘 된 아파트는 범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한 범행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집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뒤 침입해 귀금속과 고급 양주, 컴퓨터, 미화 달러 등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훔쳐온 귀금속 등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책 1,700권 있어요·사진 찍어줘요·뷔페식 떡 드세요…

"평범한건 싫다" 이색 카페 인기

대학가·금남로 등에 속속 등장

차만 마시는 고즈넉한 카페가 최근 책·사진·떡 등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변신,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남대 후문 인근의 한 카페. '모난돌 가게'라는 이름의 카페에는 공강(空講)시간을 즐기는 남녀 대학생들이 매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고 있다. 친구를 기다리는 도중, 책에 얼굴을 파묻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새내기도 있다.

문화운동단체 '모난돌'(대표 한길우)이 광주에 첫 선을 보인 이 '북 카페'(Book-cafe)에는 65평의 매장에 수필·소설·시·전문서적 등 1천70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좋은서점'이 지난해 말 문을 닫자 '모난돌' 측이 책을 인수해 카페를 만든 것이다.

'모난돌 가게'는 별다른 플래카드도 내걸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커피 값(2천원~5천원)만 내면 시간 제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어 낮부터 자정까지 자리를 지키는 대학생들이 많다.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카페'는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있는 명소. 하루 120여 명의 젊은 세대들이 둘만의 사진을 찍으며 데이트를 즐긴다. 영화 '왕의 남자'나 MBC 드라마 '궁'에 나온 의상을 준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준다. 사진(4×6㎝)은 10일 후 메일로 두 장 보내주고, 카페 입구에 붙여놓기도 한다. 가격은 커피값 외에 5천원, 웨딩드레스 사진(4장)은 코디 및 화장까지 포함해 1만원이다.

류석현(34) 사장은 "손님들이 매달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웃었다.

웰빙열풍으로 패스트푸드 대신 슬로우푸드와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을 테마로 한 카페도 등장했다. 전남대 후문에 올해 터를 잡은 '화수분' 카페는 30여 종류의 먹음직스런 떡들을 준비해두고 있다. 인절미·녹두떡 등 전통 떡에서 땅콩떡 등 '퓨전 떡'까지 다양하다. 뷔페식이어서 단돈 4천원이면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을 수가 있다. 만든 날 팔리지 않은 떡은 바로 버리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떡을 만끽할 수 있다.

'카지노 카페' 곧 상륙

하루 평균 70여 명인 손님은 대부분 대학생이지만 30대 직장인들도 눈에 띈다. 떡 맛을 보기 위해 대학과 학원 등의 외국인 강사들도 종종 온다고 정창수(43) 사장은 귀띔했다. 동구 장동 로터리 인근에도 '다담'이라는 떡 카페가 성업 중이다.

탤런트 채시라·김태욱 부부가 궁합을 보기 위해 다녀가면서 유명해진 '사주 카페'나 게임을 즐기는 '보드 카페'는 이미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는 전문 딜러에게 카지노를 배우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카지노 카페'까지 등장, 광주에도 조만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모난돌'의 한길우(33) 대표는 "광주가 문화수도를 표방하면서 신개념 카페와 라이브클럽 등 시민들을 직접 겨냥한 문화시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면 건전한 카페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이색적인 북 카페 '모난돌 가게'. 수필·소설 등 1천700여 권의 책이 있어 틈틈이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컴퓨터 병주고… 약주고…

2만3,000여명에 스파이웨어 뿌린 뒤 돈받고 치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악성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생성시키는 가짜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안티스파이웨어)을 퍼뜨린 뒤 이를 치료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28)·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가짜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비패스트'(BeFast)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한 뒤 2만3천여명에게서 5천~2만4천원씩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패스트'는 스파이웨어 5개를 자동으로 몰래 설치하는 실행파일(smupdate.exe)을 포함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원래 스파이웨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해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은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액티브X창 형태로 가짜 안티스파이웨어를 유포한 뒤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가 검색되면 '치료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는 수법으로 치료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행정처분 서류 폐기 목포시청 공무원 입건

목포경찰은 3일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게임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목포시청 공무원 민모(55)씨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04년 3월 목포 하당신도심에 있는 성인 게임장 A업소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도 관련 서류를 폐기한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다.

/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예식장 돌며 축의금 훔쳐

순천경찰은 3일 여수와 순천 등지의 예식장을 돌며 4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훔친 전모(65·부산시 서구 아미동)씨 등 3명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남의 땅 팔아 수억 챙긴 일당 '덜미'

쌍나팔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황모(48)씨의 논 908평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이고 평당 75만원, 총 6억8천여만원에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4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45), 유모(46), 지모(46)씨 등 3명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 등은 황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땅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